

아사카 신노 능묘

아사카 신노(728~744 년)는 일본의 제 45 대 천황인 쇼무 천황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자는 수도와 아버지가 계신 왕궁을 오갈 때 자주 와즈카를 방문하여 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 아사카 신노는 17 세의 나이에 급사했는데, 와즈카초에 아사카 신노의 묘가 세워졌고, 그의 명복을 기원하는 사원이 건립되었습니다. 고관이자 시인이었던 충신 오토모노 야카모치(718~785 년)는 아사카 신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슬픔을 주제로 한 여러 수의 시를 지었는데, 그 중 한 수에 와즈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吾王天所知 牟登不思者 於保尔 曾見谿流和豆香 蘇麻山

우리 대군이 하늘을 다스리시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특별히 마음에 담아 두지 않았다. 나무가 우거진 와즈카의 숲을.

19 세기 후반에 나카와즈카 주민들이 산기슭 땅을 농지로 개간하던 중 평평한 돌과 석벽, 토기 파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는 발굴되지 않았지만, 고귀한 인물의 고분임이 밝혀졌습니다. 궁내청은 이 곳을 아사카 신노의 묘라고 인정하고, 언덕 꼭대기에 작은 돌로 만든 도리이와 울타리,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와즈카초에서는 이 고분을 ‘다이코야마(다이코산)’라고 부릅니다. 차밭으로 둘러싸인 능묘에서의 전망이 절경입니다.

오시는 길

‘와즈카야마노이에(和東山の家)’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약 5 분 큰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첫 번째 모퉁이를 우회전하여 표지판을 따라 차밭 속 돌길을 따라갑니다. 주차장은 와즈카차 카페에 있습니다.